

- 주요 뉴스: 미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징후 및 연준의 통화긴축 스탠스 재확인
 - 유럽중앙은행(ECB) 정책위원들, 3월 이후에도 지속적인 금리인상 주장
 -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, 통화긴축 우려 자극(ECB 최종금리 4% 전망 점중)
 - 중국인민은행(PBoC), 경기회복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조정 예고
 - 국제금융시장: 경제지표 호조로 위험선호 전일 연준 빅스텝 우려 완화 여파도 지속
 주가 상승[+1.6%], 달러화 약세[-0.5%], 금리 하락[-11bp]
 - 주가: 미국 S&P500지수는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위험선호심리 회복에 연동
 유로 Stoxx600은 경제지표(종합 PMI) 호조 및 중국발 수요 회복 기대로 상승
 - 환율: 달러화지수는 연준과 ECB 간 통화정책 차별화 인식이 좁혀지면서 하락
 유로화와 엔화가치는 각각 0.4%, 0.7% 상승
 - 금리: 미국 국채금리는 연준 고강도 통화긴축 선반영분에 대한 되돌림 추가 진행
 독일은 시장의 ECB 최종금리에 대한 전망치가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낙폭 제한
- ※ 원/달러 1M NDF환율(1294.2원, -5.8원) 0.4% 하락, 한국 CDS 3bp 하락

주요지수					주요지수				
		3/3일	3/2일	전일대비			3/3일	3/2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045.6	3,981.4	1.61%	국채금리 10y	미국	3.95%	4.06%	-11bp
	유럽	464.26	460.02	0.92%		독일	2.72%	2.75%	-3bp
	중국	3,328.4	3,310.7	0.54%		영국	3.85%	3.88%	-3bp
	일본	27,927	27,499	1.56%	CDS 5y	한국	41bp	44bp	-3bp
	한국	2,432.1	2,427.9	0.17%		중국	65bp	69bp	-4bp
	달러지수	104.53	105.03	-0.48%	위험지표	EMBI+	390bp	392bp	-2bp
유로화	1.0635	1.0597	0.36%	VIX		18.49	19.59	-5.62%	
환율	엔화	135.87	136.77	0.66%		WTI유	79.68	78.16	1.94%
	위안화	6.9043	6.9168	0.18%	원자재	구리	407.8	408.4	-0.15%
	원화	1,301.6	1,315.6	1.08%		금	1,856.5	1,835.9	1.12%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 인플레이션 장기화 징후 및 연준의 통화긴축 스탠스 재확인

- 미국 공급관리협회(ISM), 2월 서비스업 PMI를 55.1로 발표. 전월(55.2)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2개월 연속 “50”을 상회. Wells Fargo는 경제 활동이 크게 둔화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율과 기업실적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평가
- 한편, 연준은 의회에 제출한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통해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가하는 도전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는 정책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소비지출 둔화 징후에 대한 우려도 표명
- 월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이 진정되지 않는 한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.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좁은 폭이라도 금리를 인상해야 하며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있게 되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유럽중앙은행(ECB) 정책위원들, 지속적인 정책금리 인상 주장

- 분쉬*(벨기에)·뮐러(에스토니아)·바슬(슬로베니아) 정책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으면 3월(50bp 인상 유력) 이후에도 정책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발언. 권도스 부총재는 인플레이션의 동인이 에너지에서 임금과 재정정책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

* 정책금리를 4%까지 인상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

■ 유로존 경제지표 호조, 고강도 통화긴축 우려 자극

- 2월 유로존 종합 PMI(확정치)는 52.0으로 2개월 연속으로 “50”을 상회하며 경기 확장을 시사. 독일 1월 수출도 미국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전월비 2.1% 증가. S&P Global 수석 이코노미스트, 최근의 인플레이션 장기화 징후와 유로존 경제의 놀라운 회복력이 결합되어 ECB 통화긴축 기조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
- Morgan Stanley는 유로존의 근원 인플레이션율 상승(1월 +5.3% → 2월 +5.6%) 등을 반영해 ECB의 최종금리에 대한 전망치를 3.25%에서 4.00%로 상향 조정

■ 영란은행(BoE), 금융불안 방지를 위한 정책대응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성 강조

- 하우저 금융시장 담당 이사, 지난해 9월 채권시장 불안을 억제하기 위해 시행했던 정책대응 도구(긴급 국채매입)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. 이와 관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향후 위기 발생 시에도 어수선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

■ 중국인민은행(PBoC), 경제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조정 예고

- 이강 총재, '22년 중국 인플레이션율(2%)은 이상적이었고 실질금리 수준은 적절하지만 필요 시 기준을 인하를 시사. 위안화 환율은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언급
- 류귀창 부총재, 중국 경제는 여전히 일부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지만 부양책에만 의존하지 않을 것이며 경기회복 상황에 따라 적시에 통화정책을 조정할 것을 예고

■ 중국 경제활동, 리오프닝 이후 개선 징후 점증

- 2월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는 55.0으로 전월(52.9) 대비 큰 폭 상승했으며 세부 지표 중에서는 신규 사업과 신규 수출수주 부문의 상승이 뚜렷. 차이신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보다 서비스 부문이 더 강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

■ 필리핀 중앙은행(BSP), 필요 시 추가 빅스텝(+0.5%p) 시사

- 메달라 BSP 총재, 필리핀 인플레이션율*이 9%를 상회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정책금리를 2.16일에 이어 0.50%p 추가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. 한편, 연말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범위(3% $\pm$ 1%p) 안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

* 1월 소비자물가(CPI)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+8.7% 기록

■ 튀르키예, 지진 발생일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대비 소폭 둔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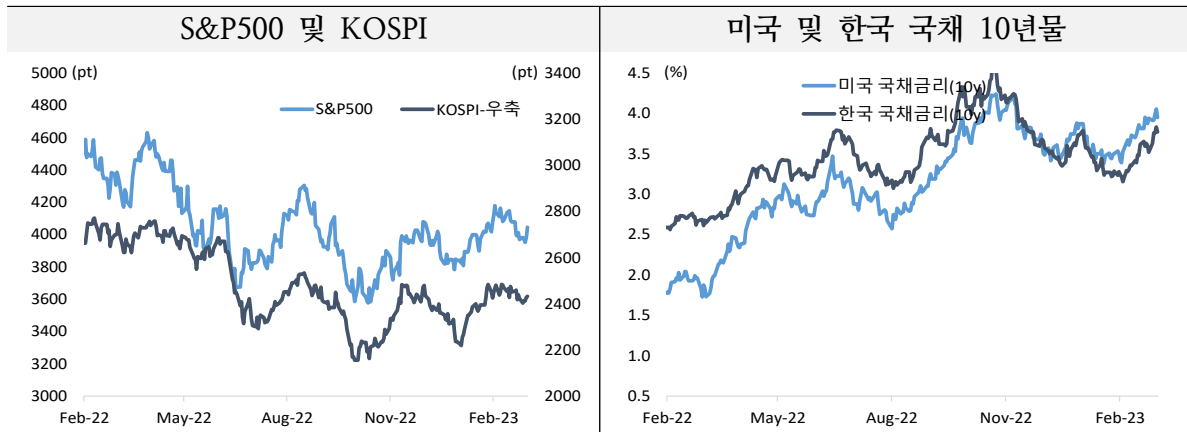
- 통계청, 2월 인플레이션율을 전년동월대비 +55.18%, 전월대비 +3.15%로 발표. 단, 주요 지진 피해 지역(가지안테프, 말라티아, 하타이)의 물가는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설명. 각각 +57.68%, +6.65%를 기록한 1월에 비해 다소 낮아진 수준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3/6 현지시각 기준)

- △미국 1월 내구재·공장 수주 △유로존 1월 소매판매 △한국 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외환보유액 등 경제·금융지표 발표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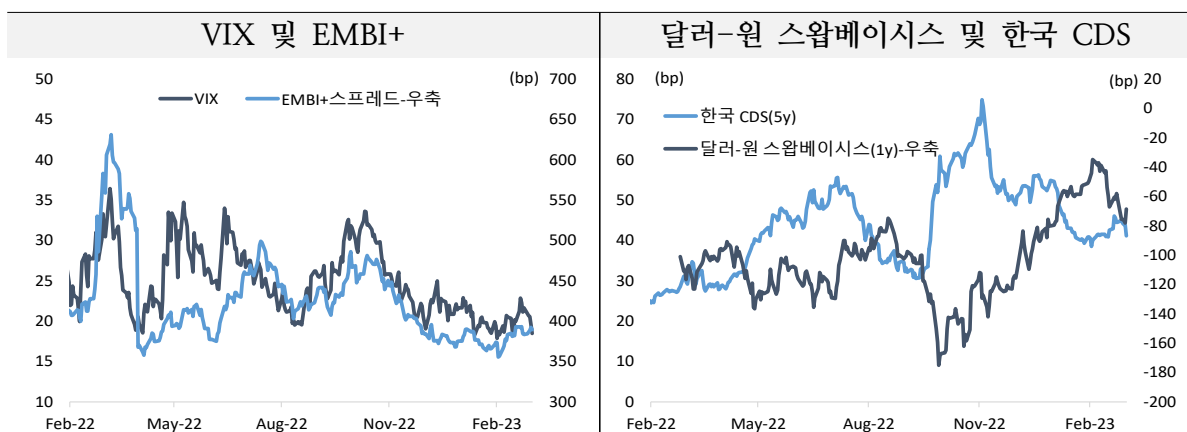
금융시장 주요 지표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

자료 : Bloomberg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11, E-mail swlee@kcif.or.kr